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황웅도 잠복記

박경랑과 함께하는 새로운旅路

작·연출 김만리

2011년 9월 6일 화요일, 7일 수요일 서울 남산국악당 7시 30분



<황용도 잠복기>가 한국공연이라는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에 김만리

올해 3월에 서울과 고성에서 공연한 「황용도잠복기」가 벌써 재공연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황용도는 고성출신 실재 인물입니다. 그 인연으로 저번 공연 때 고성오광대 이윤석 선생님께서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박경량 선생님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이 재공연이 실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두 분에게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단 타이헨은 신체장애인에 위한 신체표현이라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작업을 29년에 걸쳐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이나 보편적인 세계관을 표출하는 신체표현의 모색으로의 도전이었습니다.

인류사상 대다수였던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안타까운 만큼 장애인 신체에는 예술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이 도전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정신이 깃들인 신체표현은 신체장애인이야말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신체표현이라고 하면 기술을 배워서 재주를 보여준다거나 신체 컨트롤 훈련의 성과를 보여준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반되는 발상입니다. 이러한 전위예술을 타이헨은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3월달 고성에서 민족예술의 맛을 보여주는 고성오광대와 전통무용가 박경량 선생님이 저희 전위예술에 합류해주시면서 작품에 경이적인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예술의 진가는 장르를 넘어서 진정한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더욱 발휘한다고 실감하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한국의 존경스러운 전통예술과 제가 일본에서 만들어낸 타이헨의 전위예술이 함께 하는 무대를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이질적인 두 개가 「황용도잠복기」-박경량과 함께하는 새로운 旅路로 위해 진정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만남을 맺어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와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재공연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경량 선생님, 먼 길을 와 주신 남해안별신굿 정병만 선생님, 고성오광대 이윤석 선생님께 깊이 마음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한 인연 박경량

지난 3월 24일 국립부산국악원 공연도중 갑작스럽게 공연 제의를 받게 되었다. 처음 도착했을 당시에는 종종 장애인들이 오고가고, 무대 뒤엔 그들을 수행하는 팀들이 더 많았으며 왜 이윤석회장님이 그렇게 다급히 이런 공연에 나를 부르셨을까..하며 약간의 의문을 품었다. 미리 계획된 공연계획이 아니었으므로 그저 6분만 추면 되겠지라고 편히 생각했다. 즉흥이지만 공연의 의미는 알고 추어야겠다는 생각에 공연팜프렛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급한 공연섭외와 결정에 이어 이 공연에 품었던 생각들은 한방 얻어맞은 듯 눈이 번쩍 뜨였다. 이 중요한 공연에 갑작스레 출연하게 된 것이 단순하거나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님을 다시금 직감했고 의미와 무게를 다시 느끼며 잠시나마 품었던 내 생각에 부끄러움이 앞섰다. 그리고 바로 많은 생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몸, 그 인간의 몸이 지닌 의미 속에서 이 공연에서만큼은 장애, 비장애의 구분이 무의미했었다. 난 오히려 나와 같은 비장애인이 쉽사리 간과하면서 빚어내는 사고와 일상행동의 숨은 장애의 요소가 무대 위에서 더 크게 부각된다는 반성이 앞서며 춤을 추고, 몸을 쓰는 내 자신이 순간 숙연해졌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진정한 겸손과 존중, 존경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너무나 아름다운 몸을 가진 자들임을 느낄 수 있었다. 장애는 육체만의 장애에 한정되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깨우친다. 그리고 모든 장애는 내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 또한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다. 정신적 장애, 장애 중 가장 큰 장애이다. 바로 마음의 장애를 말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내 인생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남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인 것 같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이었고, 그 희망을 보면서 또한 마음의 아픔도 함께 자리했다. 그래서 내 머릿속을 스쳐간 작업이 바로 오늘 무대에서 그들이 표현 할 수 없는 숨겨진 마음과 몸짓을 내가 대신 받쳐 주고 싶었다. 물론 그들보다 못한 몸짓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몸짓과 몸의 언어를 대신 메워 줄 수만 있다면, 새로운 센세이션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순간 순간 눈가를 핑도는 눈물을 가슴 깊이 남기고 마음을 굳혔다. 공동제작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 한 후, 공연 뒷풀이에서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나의 의견은 다행히도 만리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며, 곧 바로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참 우연한 인연이기도 한 것이, 만리선생 역시 어머니가 유명한 춤꾼이었기에 당신도 그 끼를 자연스럽게 물려 받았지만 물려받은 끼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접지도 못한 채로 살아왔기에 더욱 심적고감을 빨리 이루며 작업이 시작되었다. 연출은 만리선생님이 담당하셨고, 음악이나 중요 부분의 동작적 미흡함의 완성도를 꼭 이루어야 하는 부분만을 내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번 공연의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되도록 좀 더 보강해서 이번 국내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다. 만리 선생님을 비롯하여 소중한 인연이 되어준 단원 및 스태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함께 춤 출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함을 느끼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금 소중한 인연 앞에 감사드립니다.

황웅도 잠복기 작품내용

이 작품은 1901년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난 실재인물 황웅도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 고향에 교육사업과 양잠 산업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인 동시에 독립운동가로서 일제에 저항한 지사이기도 하다. 일본정부의 탄압으로 목숨이 위협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된다. 일본으로 잠복한 그는 한국의 민속가무악단을 창립하고, 판소리, 탈춤, 풍물놀이 등을 공연한 기획자로서 재일동포들에게는 용기를, 일본인들에게는 감흥을 주었다. 그 메시지는 언어를 통한 주의주장보다 조용하면서도 더 깊이 사람들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갔다. 그에게 독립운동과 예술은 방식만 다를지언정 뜻은 하나였다. 이 작품은 민족에 대한 긍지와 고향 땅에 대한 사랑을 갖고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다.

마을 일으키기~사회교육과 운동

농업학교 양잠과에서 기술을 습득한 황웅도는 고향에 돌아와 잠업전습소를 건설하고, 농민야학회를 설립하여 글자를 가르친다. 그러나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을 깨달은 웅도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노래하는 '일심회'를 결성, 독립선언문을 발표한다. 첫 구숙, 구류.

운명적 만남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무의 명인 김홍주를 고성에 불러 가무악전습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기지였던 웅도는 반대에 앞장선다. 그러나 김홍주를 보자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둘은 가무악전습소 근처에서 신문생활을 시작한다.

신간회 고성지회 설립~슬픈 장송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져 일심회는 해산되지만 그 의지는 신간회 고성지회 창립으로 이어진다. 일본학생들이 이용진이라는 소년을 때려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신간회가 전면에서 나서 민중들의 분노를 조직하여 장례식을 치른다. 장례행렬이 마을을 도는 가운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용히 항의행렬을 이뤄 동참하는 일반시민들. 이윽고 그 행렬은 수백 명에 이른다.

마당에서 벌어지는 대 이벤트

황웅도와 신간회 회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무력감을 타파하기 위해 당대 인기 절정의 무용수 최승희 초대하여 공연을 벌인다. 뜨거운 열기 속에 공연이 끝나자 황웅도는 독립을 외치는 뼈라를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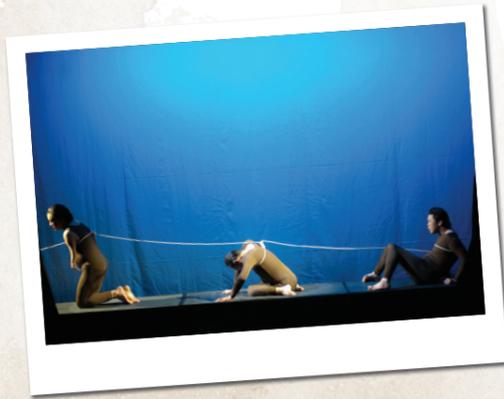
프롤로그

황웅도를 키운 고향, 고성의 산, 대기, 강, 바다를 상징하는 군무, 향토의 자연에 민중들이 그들의 하루하루를 형형색색의 실로 무늬를 짜 자주독립의 깃발을 올린다.

들에서 노는 아이들~ 흩어지는 아이들

황웅도의 유년시대. 들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 그런 목가적인 마을에 소리없이 다가오는 침략의 그림자. 아버지가 연행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는 부랑자가 되어 정처없이 떠돌아 다닌다.





체포~도망가는 민중

그날 밤, 고성의 한 언덕에서 조선총독부에 체포되는 옹도. 많은 친구들이 정치범으로 처형된다. 더 이상 조선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김홍주와 함께 일본으로.



대도시에 표류~극단 설립

낮선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옹도와 홍주. 옹도는 홍주를 내세워 극단을 만들고, 일본 각지에 조선가무악을 선보인다. 조선가무악에 목말라 있던 재일 조선인들은 열광한다.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활기를 되찾는다.



일본의 패전~해방

이윽고 일본의 패전, 해방의 기쁨을 감추며 살아가는 재일 조선인들과, 자국의 패전으로 풀 죽은 일본인. 거기에 황용도가 이끄는 극단의 풍물소리가 들려온다. 밝고 활기 찬 소리. 해방의 기쁨도 패전의 슬픔도 모두 뒤섞여, 조선인도 일본인도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긴다.



한국전쟁~에필로그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다음 해 황용도는 재일 한국인으로 조용히 숨을 거둔다. 그는 죽어서도 영혼이 되어 옛날 자신이 체포되었던 고향 고성의 언덕에서부터 일본에서 살아가는 홍주를 지켜준다.

Special Guest 특별출연



한국 무용의 비너스, 박경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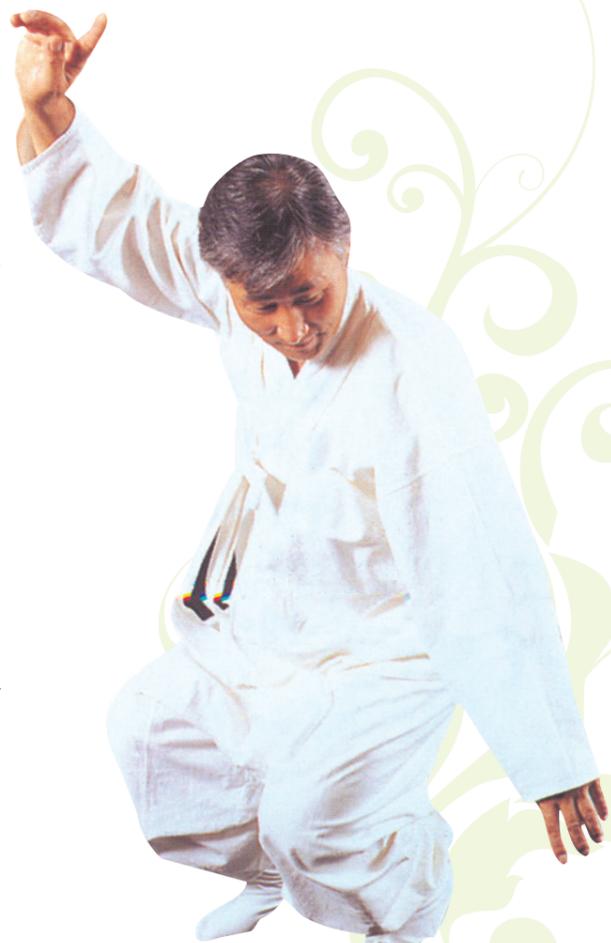
어느 야외공연에서 박경량의 살풀이를 촬영하던 방송국 카메라맨 두사람은 아주 새로운 기분을 느꼈다. 그녀의 춤은 남자의 마음 깊이 숨어있는 작은 불덩이를 활활 태워 화염이 온몸을 감쌌던 것이다. 그들은 박경량의 춤이 일반 한국 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느낌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간하지는 못했다. 당신의 춤이 섹시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춤은 하체가 여성 춤이라고 할 수 있다. 발디딤이 섬세하고 허리놀음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신체의 미세한세포까지 움직이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작을 하다가 만다. 팔을 뿌릴 때도 손목만 까딱한다. 그러나 힘이 몸통에서 팔을 지나 마지막에 손목을 뿌려야 한다. 몸기운이 서서히 손목에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춤은 한국 무용의 주류와 다르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나는 호남류와 영남류를 겸비하려 한다. 호남류의 철학은 아름다움과 기교이다. 영남류는 흥과 신명이 깃들인 춤이다. 호남류는 미를 추구하고 곱게 춘다. 영남류는 시원하고 투박하지만, 흥의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 춤은 호남의 안방춤과 영남의 마당춤을 통합하는 춤이다. 그러니 내 춤을 단순히 섹시하게만 보지 말아 달라. 박경량의 춤에는 여성이 생동하고 있다. 여자의 춤에 여성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 무용가 대부분은 여자이지만 그들의 춤에는 여성이 없다. 그들의 춤에는 여자의 환희와 슬픔이 없고, 그냥 인간의 막연한 한과 기쁨만 있는 것이다. 그런 중성의 춤과 달리 박경량의 춤은 여성의 매력이 폭발한다. 그래서 그녀의 춤을 보는 남자 관객은 남성이 되며, 여자는 여성이 된다. 비너스가 여성의 상징이라면 박경량은 한국 무용의 비너스인 것이다.(경성대학교 교수 배학수)

출연진

경남 고성 의 덧배기춤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오광대)

경상도 일대에서 남자들이 마당에서 추는 활달한 춤을 ‘덧배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한 순서나 격식없이 추는 허튼춤인데, 경남 고성의 ‘덧배기춤’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놀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 예전의 춤을 잃지 않고 특별한 춤사위들이 많다. 예전 벽사의식무의 흔적이 있어 크고 활달한 데, 감고 푸는 맵시는 교방춤 못지 않게 정교하고 전체적으로 춤이 살짝 기울여 추는 것은 고성만의 것으로 멋이 넘친다. 경상도 곳곳의 덧배기춤이 흥했을 것인데, 이젠 고성의 것이 화려하던 명성을 수습하여 대표하는 듯하고 1998년에 열린 세계무용축제의 ‘명무초청공연’에서 이윤석이 ‘덧배기춤’이란 이름으로 춤을 펼친 이후 여러판에 서면서 다시금 ‘덧배기춤’을 선명히 각인시켜가고 있다. 장단은 경상도의 엇거거리와 덧배기장단(자진모리)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호적이 없어져 나긋나긋한 춤을 이끌어 낸다.

이윤석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 오광대 예능보유자)



남해안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 82호-라호)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도를 중심으로 주로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사이에 하는 굿으로 동해안 지역처럼 집단을 이루지 않고 주무(主巫) 1명, 조무(助巫) 여러명과 악사는 장구, 북, 팽과 리 등으로 삼현육각을 연주한다. 남해안 별신굿에서는 영남지역의 음악인 통영 삼현육각 시나위를 유일하게 연주하며 굿의 시작과 끝날 무렵에는 대금이 청신악과 송신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무녀는 무구(巫具)로서 부채, 부령(신방울), 신칼, 손대 등을 사용한다. 굿의 순서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보통 청신길 군악, 들맞이, 당산굿, 일월맞이굿, 용왕굿, 부정굿, 가망굿, 제석굿, 서낭굿(대잡이굿), 손굿, 손풀이, 동살풀이, 염불굿, 군웅굿, 거리굿(시석굿)순으로 이어진다. 보통 성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신앙성이 뛰어나며 예술성 높은 무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사설이나 재담으로 영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며 한거리가 끝날 때 마다 고수(鼓手)와 마을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놀이 마당을 이루기도 한다.

정영만 (중요무형문화재 제 82호-라호 남해안 별신굿 예능보유자)



코우즈키 요우헤이(上月陽平)

1977년 5월생 뇌성마비(CP)
1999년부터 참가. 극단 타이헨 외에도 카폰 연주자·보컬로 유닛 라이브 출연
자신이 기획한 아트 이벤트 프로듀서도 겸함



김만리(金滿里)

1953년 11월생 소아마비
극단타이헨 창설자이자 예술감독
출산 휴가 중의 한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 연출
세계적 부토 무용기



코이즈미 유우스케

1971년 3월생 선천
1988년부터 참가.
서예 무용 등 다양



후쿠모리 케이노스케

1937년 10월 척주
1983년부터 참가.
외부 극단 게스트 및
극단 타이헨 발행



쿠스모토 테츠로우(楠本哲郎)

1957년 5월생 교토
2008년부터 참가.
자립생활센터에 근무

보조출연 칸타로우, 무카이 노조미, 김탄진, 장애경, 장(한푸리가무악단 단장) 판소리 박종호(민족예술단 대님) 고혜련, 신디사이저 : 양소영, 구음 : 박종호, 원진주, 장단원 이누아마 미나코, 키다 유우스케, 동넙 : 박동넙, 무브 : 0 김재욱, 신상 : 신상현, 미난 : 배민환 **조명** 문홍식 **무대** 이채

출연진 코우즈키 요우헤이, 김만리, 코이즈미 유우스케, 후쿠모리 케이노스케, 쿠스모토 테츠로우, 정영만, 이윤석, 김재욱, 신상 : 신상현, 미난 : 배민환 **조명** 문홍식 **무대** 이채



장애인의 신체를 통해 전위와 고전을 수용하다

연출가 김만리 인터뷰

이번 작품을 '극단 타이헨 28년의 표현의 집대성'이라고 말한다. 어떤 의미인가?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말해달라. 극단 타이헨의 대표적 형식은 옴니버스다. 하나 하나의 작품을 연결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형식. 그리고 댄스형식의 작품이 많았다. 다음은 설명이 없는 추상적 표현이다. 신체표현만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런 감각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스토리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시각적 이미지, 내 안에 있는 영감이나 이미지를 무대 위에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주를 이뤘다. (중략) 이번에 한국의 전통 예술을 통해 그 양 극단을 정면에서 다루고자 했다. 일종의 반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전무용은 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그러나 전통예술에서는 장애인의 신체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애인의 신체나 움직임이 굉장히 부정적,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서 정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중략) 이번에 그 '전위'와 내가 반발해왔던 '고전'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내가 만들어온 전위라는 것이 고전도 포함한다, 전위에 고전의 요소도 들어있다는 의미로 <황용도 잠복기>를 만들었다.

신체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신체워크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의학 용어나 전문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3개의 자세', '피부 감각론'이 인상적이었다. 인간은 절대 지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지면, 즉 바닥이 중요하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누운 자세로 세상과 대면하는 중증장애인의 세계관은 언제나 지면에서 시작한다. 지면에서 보는 지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그래서 비장애인의 경우 서거나 달리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서서 뭔가 표현하거나 서서 뭔가를 던지거나. 댄스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다.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지면이라는 것은 마치 제1의 존재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면을 생각하면 지구 전체가 연결된다. 그것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운 채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무대에 대한 깊이랄까, 지평을 체험하는 존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누워 생활하는 장애인 그 자체의 특성을 잘 살려나가고 싶다. 그것을 소외시키지 않고 살려나가는 신체표현을 하고 싶다.

선생님 작품에서 배우가 등장할 때 대부분 눕거나 앉은 자세로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가. 그렇다. 누워있는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압적이고 권력적이 되어 버린다. 그들이 동시에 무대에 등장할 때, 서 있는 사람이 그들을 소외시키지는 않을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립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지면과 대치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략) 서있는 자세와 누운 자세의 배우가 공존하며 무대를 만들어나가는 구성. 지면을 지키고 있는 누운 배우들의 신체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그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서있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앉은 자세. 앉은 자세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인다. 지평 가운데의 덩어리로, 거기에 있는 바위처럼, 산처럼, 피부도 매우 중요한 감각이다. 내 신체훈련 기초에는 구르기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구르며 숨쉬기. 이와 함께 기(氣). 기를 사용하여 몸을 인식해간다는 것은 피부 세포 하나 하나가 모두 호흡함으로써 회복된다는 의미다. 구르기만으로 피부는 대지와 맞닿게 된다. 신체라는 건 대지와 함께 어디든 굴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평 그 자체가 신체의 피부라고도 말할 수 있다. 피부 세포 하나 하나에도 인격이 있다. 자신이 자신의 신체를 지배해서 하나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 하나의 각성을 통해 기억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세포 하나 하나가 이어져 자신을 구성, 형성하고 있다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체를 컨트롤한다는 감각은 안된다. 자신의 신체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것이 신체에 대한 서양적 사고방식이다. (중략) 자기 내부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아를 없애 버리는 것이다. 하인이 된 기분이라면, 그 소리에 따라가는 신체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표현이 탄생한다.

<한국연극> 2월호 인터뷰 중



김만리(金滿里) 극단 타이헨 대표·예술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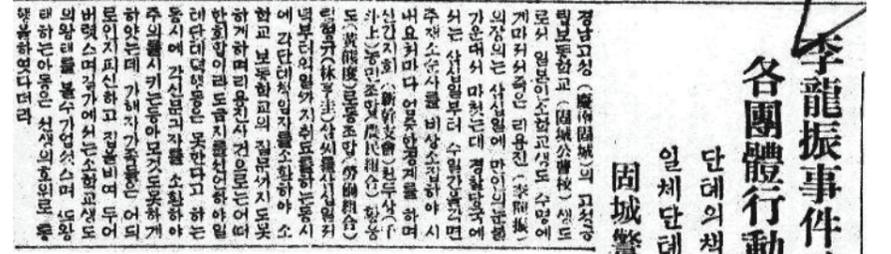
1953년 11월 출생. 어머니는 한국고전무용의 명인 김홍주(金紅珠). 동편제의 마지막 명창 김봉주(金鳳珠)의 조카다. 어렸을 때부터 무용에 재능을 보여 김홍주의 후계자로 기대를 모았으나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휠체어에 의지하는 중증장애인이 된다. 9살 때부터 18살까지 장애자수용시설에서 생활, 그곳의 체험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통찰하기 시작한다. 시설을 나온 후 통신교육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20살 때 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가. 22살 때 일본 최초로 24시간 간병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시작. 1983년(30살)에 극단 타이헨을 창립했다. 이후 예술감독으로서, 지금까지 53작품을 쓰고 연출했다. 그 예술성은 인류의 미의식을 밑바닥에서부터 전복하는 예술표현으로서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몸소 춤을 추기도 하며, 지금까지 3개의 솔로 작품을 공연했다. 또한 신체 표현 지도자로서 김만리신체예술연구소를 개설, 신체장애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연구생으로 받아들여 지도하고 있다. 워크숍도 정력적으로 조직, 해외에서도 1999년 독일 베를린 이후 수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큰 프로젝트로는 2001년 에딘버러 Theatre Workshop에서 신체장애자를 프로 배우로 양성하는 강좌를 지도.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말레이시아 현지의 신체 장애자들을 지도하여 공연으로 결실을 맺는 프로젝트를 실시, 큰 갈채를 받았다.

황용도 연표

- 1895 침일전쟁(황용도 탄생 6년 전)
- 1901 8월 6일, 황용도, 경상남도 고성, 바다와 산에 접해있는 아름다우, 독립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고향에서 태어나다.
- 1904 러일전쟁. 황용도(3세)
- 1910 한국병합. 황용도(9세)
- 1919 3월 1일, 서울과 몇몇 마을에서 독립선언 발표. 농촌으로까지 운동이 확대. 3월 17일, 고성에서도 최초의 독립운동.
- 1920 고성농민아학회를 열어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침. 회장 : 황용도(19세)
- 1921 1월 '일심회' 결사집회. 고등경찰 관계 연표에 의하면, '1920년 12월, 일심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꾀함'이라고 적혀 있음. 3월, 경찰 명령으로 일심회 해산. 황용도는 3월 31일 부산지방 법원에서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 1926 10월 5일, 고성농민조합 창립. 소작권 교섭 등 농민들의 힘이 됨. 창립 당시 회원 25명, 1929년 현재 회원 286명. 조합장 황용도(25세)
- 1927 신간회 고성지부 탄생. 황용도, 간부로 활동.
- 1928 이용진 소년 15세(고성보통학교 학생), 일본인 소년 여러 명한테 폭행당해 한 달 후 사망. 장례식은 황용도 등이 신간회 주최로 거행.
2월 26일, 잠업전습소 건설 자금 모집 관련 조선일보 기사. "고성잠업전습소 설치 계획 완성. 27년부터 착수해왔다"는 내용의 기사.
4월 21일, 조선일보 기사, 고성잠업전습소 신축 낙성. 잠업전습소는 번영, 이윽고 잠업은 세계공황과 일본의 전쟁돌입, 금융위기에 휩쓸려 이끌어 갈 수 없게 됨.
- 1929 당시 인기를 모으고 있던 최승희의 무용공연을 개최, 관중들 앞에서 황용도 등 신간회 간부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 그날 밤, 간부들 체포.
- 1931 신간회 해산. 만주사변
- 1933 연말 경, '조선공산당재건동맹' 사건으로 황용도 검거
- 1934 2월까지 경찰에서 취조를 받음. 황용도는 기소되지 않고 석방. 황용도는 김홍주와 함께 일본으로. 오사카 히가시 요도가와구 소젠지(崇禪寺) 역 근처에 정착. 김홍주를 간판으로 민속고전예능극단을 만들어 '삼천리좌' '황금좌'로 이름 붙여 일본 전국을 순회, 각지에서 제일 조선인들의 환영을 받음.
- 1945 8월 15일 일본정부, 포츠담선언 수락 발표. 일본패전. 조선해방.
교토신문 10월 29일 광고 '10월 28일부터 3일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조선악극단 특별공연' 경운좌(慶雲座) 40명 출연, 명기 김홍주, 김앵무 특별공연. 주최 조선연예사('근대가부키연표교토편 별권:소화18년~22년 보유·색인', 저자:극림극장근대가부키연표편집실)
- 1950 한국전쟁 발발
- 1951 그 이듬 해, 재일조선인 신분으로 사망.

***제령 제7호**

대정 8년 제령 제7호. 조선총독부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법률과 구별하기 위해 '제령'이라 칭했다. 대정 8년 제령 제7호란, 같은 해(1919년) 제정된 7번째 법령을 말하며,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이라고도 불렀다. 삼일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또 법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같은 해 4월 급히 제령 제7호를 만들어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자, 또는 방해하는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하기로 했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법령으로 사용되었다. (주 : 미즈노 나오키, 교토대 교수)



(중의일보, 1928. 2.6)



(조선일보, 1928. 4.21)

고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황용도는 1920년 12월, 일심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꾀함'이라고 적혀 있음. 3월, 경찰 명령으로 일심회 해산. 황용도는 3월 31일 부산지방 법원에서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황용도는 1920년 12월, 일심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꾀함'이라고 적혀 있음. 3월, 경찰 명령으로 일심회 해산. 황용도는 3월 31일 부산지방 법원에서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고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황용도는 1920년 12월, 일심회를 조직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꾀함'이라고 적혀 있음. 3월, 경찰 명령으로 일심회 해산. 황용도는 3월 31일 부산지방 법원에서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고성농민아학 졸업사진. 뒷줄 맨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황용도로 추정. (동아일보, 1929. 3. 23)



맨 뒷줄 왼쪽이 황용도. 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이구(李玖) 맨 앞줄 중앙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김홍주다.

學生이作黨

普校生을毆打

남명고사회(南明學校)에서

慶南固城의 普校生

경남(慶南)의 固城(固城)에서 普校生(普校生)들이 普校(普校)를 毆打(毆打)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1928. 1. 28)

朝鮮兒童被打事件과 新幹支會의 對策

各 관계자들은 萬안하고 國策도 必실행할하기로

조선(朝鮮)에서 발생한 어린이들(兒童)이 폭력(暴力)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각 관계자(各關係者)들은 만안(萬安)하고 국책(國策)도 반드시 실행(施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일보, 1928. 1. 29)

固城靑年團의 教育熱

慶南(慶南)의 固城(固城)에서 靑年團(靑年團)의 教育熱(教育熱)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1924. 4. 16)

藝妓組合의 全部撲滅을主張

慶南(慶南)의 固城(固城)에서 藝妓組合(藝妓組合)의 全部撲滅(全部撲滅)을 주장(主張)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중앙일보, 1926. 11. 26)

죽은李龍振에 各團體聯合葬

죽은 李龍振(李龍振)에 대해, 각 團體(各團體)가 聯合葬(聯合葬)을 치렀다는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1928. 2. 2)

固城郡內 社會團體一覽

慶南(慶南)의 固城郡(固城郡) 내의 社會團體(社會團體) 목록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1928. 5. 17)

固城郡 教育機關

固城郡(固城郡)의 教育機關(教育機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현황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고성군 교육기관: 고성농민야학회 49명, 10월 23일 설립. 설립자 황응도. 설립시 학생 37, 현재 학생 123. 교원 3, 회장 황응도.(이하 생략)

황응도 판결문

判決
 慶高南道固城郡固城面
 水南洞 無職業
 黃熊度
 二十一年
 右之者ニ對スル大正八年判令第七號
 違反被告事件ニ付大正十年三月
 裁判用紙
 三十一日釜山地方法院統營支廳ニ於
 テ被告ノ懲役八月ニ處スト言渡
 レタル判決ニ對シ被告ヨリ控訴ノ
 申立ラタルニ因リ本院ハ朝鮮總督
 府檢事 栗山善吉立會審理シ
 遂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文
 本件控訴ハ之ヲ棄却ス

0117

판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수남동 무직업
황응도
이십 일 년

위 자에 대한 타이쇼 8년 제령 제7호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타이쇼 10년 3월 31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피고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한 판결에 대해, 피고가 공소의 중립을 요구함에 따라 본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쿠리야마 가네요시 입회 심리를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 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면 주재 청년들에 의해 조직된 고성 일심회 회장으로 추천되어 동 회의 취지서 기초 위탁을 기회로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던 조선독립운동의 사상을 발언하려 기획하여 타이쇼 9년 12월 28일 피고의 집거실 내 한문서당에서 “5년이나 계속된 전쟁(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평화공존의 소리는 세계를 진동시켜

동방의 조선민족 2천 명에게 신지식을 의식하게 하였다. 우리 사회가 작년 이래 처음으로 눈을 뜨고 손을 움직여 이 수백 년 동안 황폐하고 수퇴한 꽃도 피우지 못했던 뒷산을 팽이나 가래로 갈았다. 우리 뒷산의 뜰 속에는 어두침침한 수목이 꽃을 감추고 풀뿌리가 뒤엉켜 작은 돌이 굴러가고 있다. 이 풀뿌리 작은 풀을 청소해야 한다. 봄이 되면 산이 초록으로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곳간에 수확한 황금빛 곡식으로 넘치는 것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자.”라고 적어 조선인들은 타이쇼 8년 독립운동으로 각성해온 것을 이후로도 또한 이를 계속하여, 조선 내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독립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취지서를 작성하여 타이쇼 10년 1월 3일 고성 내 크리스트 교회당에서 집회를 거행, 일심회 회원 약 18명에 대해 위의 취지서를 낭독, 이를 통한 정치변혁 목적 하에 다수 공동으로 같은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집회를 방해할 것을 선동했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1. 김성복에 대한 고성경찰서 심문조서 중, 작년 12월 중 수남동 철성 한문서당에 간 황응도가 취지서를 설명하여 “나(김성복)한테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는 취지서 글 가운데 “봄이 되면 산이 초록으로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곳간

엔 수확한 황금빛 곡식으로 넘치는 것을 ...”의 내용 첫 줄은 한국의 독립운동 정세는 점점 강해지며, 둘째 줄은 일본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1. 0상린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심회 취지서의 의미는, 우리 조선민족은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으나, 오늘 눈을 떴듯이, 우리(조선의) 소년들은 봄 동산에 자라는 풀의 싹과 같이, 현대에 있어서 표면의 목적은 자유의 발달, 신체의 건전이라고 말해도, 이면은 다양한 곳에서 조선독립운동이 고조되어 가는 정세이므로, 우리도 일심동체가 되어 일심회를 조직해, 조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은 이름과 같이 퇴거시켜, 장래의 희망을 기대하라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에 대한 등 고문조서 중, 취지서 가운데 “일본은 가을이 되어(기세가 약해져) 향후에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한다”고 쓴 것은 나쁜 짓이라 생각하여 취지서를 불태워버렸다고 한다는 취지의 기재.

1. 천황공정에 있어서 피고인 나(황응도)는 타이쇼 9년 12월 중, 일심회에 입회하여 동 회의 회장이 되어 같은 달 18일 수남동 한문서당에서 일심회 취지서를 기초했음이 분명한 그 취지서는 증 제3호와 동일한 취지의 것이며, 타이쇼

10년 1월 3일 고성 크리스트 교회당에서의 일심회 제14회 총회 석상에서 나는 위의 취지서를 낭독, 그 회의에 모인 회원은 18명이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

1. 판시에 적합한 기재가 있는 증 제3호 고성 일심회의 취지서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취보면, 피고의 행위는 타이쇼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함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여 피고를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압수한 물건은 몰수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 차출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한 원 판결은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고,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공소는 이유가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준거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이쇼 10년 4월 30일

대구 복심 법원 형사 제2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마에자와 나루미
조선총독부 판사 사토미 칸지
조선총독부 판사 이명섭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쿠스모토 카네고로

項ニ談索スルノ以テ懲役刑ノ選擇
 被告ノ懲役八月ニ處シ押收物件ハ
 沒收ニ係ラサルヲ以テ刑事訴訟法第
 二百二條ニ依リ差出人ニ還付スル
 上ス
 原判決ハ前示ノ同一ニテ相當ナルヲ
 以テ被告ノ控訴ハ理由ニ依リ刑
 事訴訟法第二百六十一條第一項ニ
 裁判用紙
 則リ主文ノ如ク判決ス
 大正十年四月三十日
 朝鮮總督府判事 李用慶
 朝鮮總督府判事 李用慶
 朝鮮總督府判事 李用慶

0123

일심회취지서

(1920년 12월 29일, 황용도 기초.
1921년 1월 3일 집회에서 낭독)
(대구복심법원판결에서 현대어 번역)

5년이나 계속된 전쟁(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평화공존의 소리는 세계를 진동 시켜 동방의 조선민족 2천 명에게 신지식을 의식하게 하였다. 우리 사회가 작년 이래 처음으로 눈을 뜨고 손을 움직여 이 수백 년 동안 황폐하고 수퇴한 꽃도 피우지 못했던 뒷산을 깎이나 가래로 갈았다. 우리 뒷산의 뜰 속에는 어두침침한 수목이 꽃을 감추고 풀뿌리가 뒤엉켜 작은 돌이 굴러가고 있다. 이 풀뿌리 작은 풀을 청소해야 한다. 봄이 되면 산이 초록으로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곳곳엔 수확한 황금빛 곡식으로 넘치는 것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자.

신간회 강령

(1927년 2월 15일 창립)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극단 타이헨

“장애인의 장애 자체를 미(美)로 전화시킨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자신이 중증신체장애인인 김만리(재일 동포2세)가 창작·연출하면서 27년에 걸쳐 예술성 높은 무대작품을 창작해온 무대예술집단.

종래 ‘추하다’고 간주되어 온 신체장애인의 육체나 움직임의 부자연스러움을 표현력으로 승화시켰으며, 새로운 ‘美’를 낳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미의식 자체를 밑으로부터 변혁할 신체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술에 대한 해석 자체를 넓히고 신체장애인밖에 할 수 없는 표현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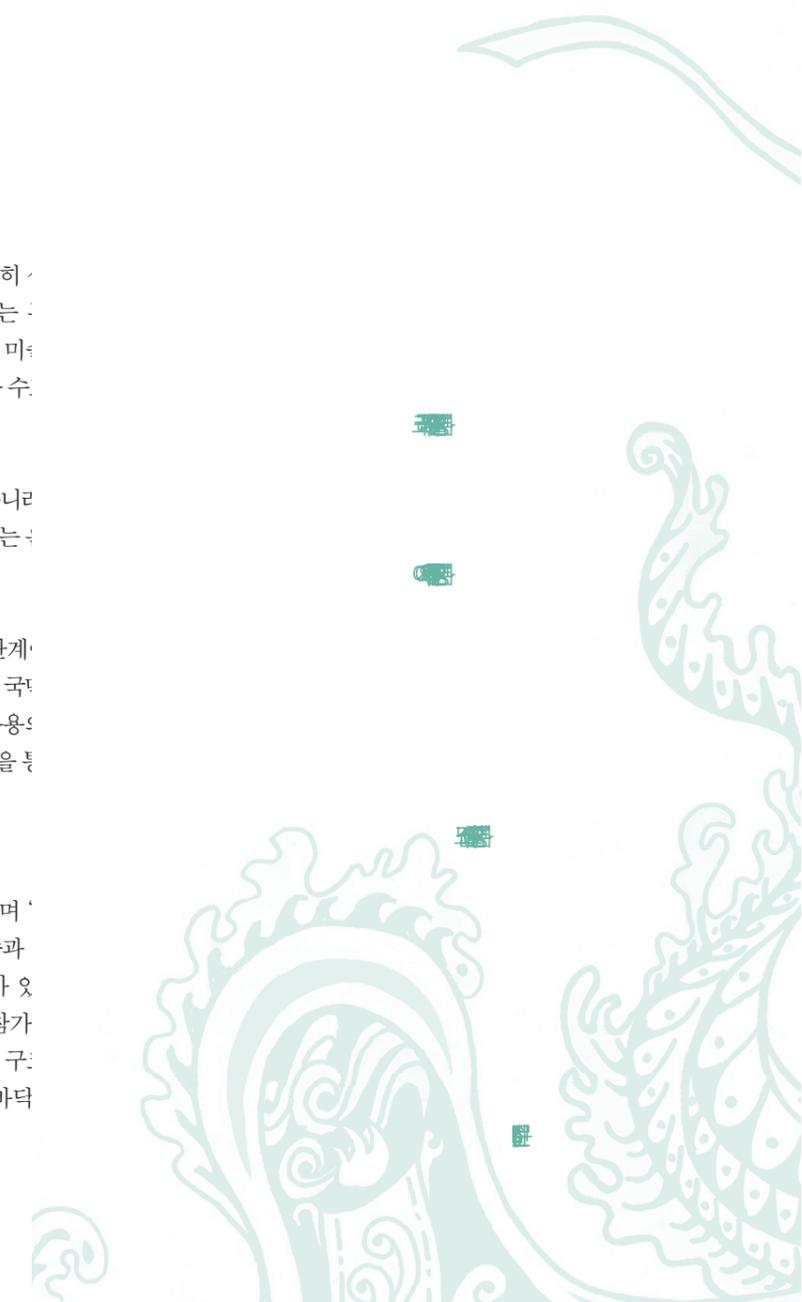
1983년 <꽃은 향기로워도(色は臭へど)>	창단공연
1989년 <은하반란 '89>	‘대사없는 추상적 신체 표현’이라는 현재의 스타일 확립
1992년 <나이로비 카카메가 키즘>	케냐 공연
1996년 <우주와 놀다>	세계적 부토가 오노 카즈오와의 공동작업
1997년 <DEPARTED SOUL>	제11회 베르나 탄츠 페스티벌 초청공연
1998년 <우리 어머니>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 이후 독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공연
1999년 <코쥬이치만넨 사이(壺中一萬年祭)>	일반 신체장애자들이 엑스트라로 참가
2001년 <마하라바전설>	베를린공연. 2005년 독일연극제 Theater der Welt 초청
2002년 <한여름밤의 꿈>	
2004년 <귀향-여기가 이향이였다>	서울 아롱구지소극장
2007년 <Hutan Kenangan>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연.
2008년 <모습을 드러낸 자>	체 게바라의 생애를 다룬 작품.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시리즈 첫 작품
2009년 <황용도 잠복기>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두번째 작품
2010년 <자유로부터의 도망>	‘남자는 여행을 떠났다’ 마지막 작품
2011년 <황용도 잠복기>	‘황용도의 귀향’ 서울, 고성 공연

전반은 조용하다. 솔로 음악도 그렇지만 특히
여어 울리며 장관을 연출하지만 이후로는
누에고치 장면도 있고, 한국의 무채색의 미
이지메 장면. 우리는 이렇게 잔혹하게 죽을 수.

황용도를 ‘畫中之餅’처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황용도처럼(혹은 황용도와 함께) 살아가려는

김만리에게 <황용도 잠복기>는 미묘한 관계
표현자로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국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한국 무용의
발동작을 기대하긴 힘들다. 격렬한 정신성을 특
장면이기도 하다.

김 씨는 워크숍 현장에서 대화를 거듭하며 ‘
하는 욕구는 극단을 결성할 당시 내 모습과
<황용도 잠복기>라는 제목으로 초연된 바
살풀이에 담아 구성한 것이다. 한국의 참가
대부분이기에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구
“민중의 탄압장면이 매우 리얼하다. 손바닥



한국영남춤문화예술연구소
극단 타이헨 劇団態変

한국영남춤문화예술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75번지
효창 푸르지오 APT 상가 2층
(우 140-120)
C.P 011-9523-4604

Performance troupe TAIHEN
1-15-15 Nishiawaji, Higashiyodogawa-ku, Osaka, 533-0031, JAPAN
tel/fax +81-6-6320-0344
taihen.japan@gmail.ne.jp
<http://www.ne.jp/asahi/imaju/taihen>